

“큰돈 드는 결혼식인데...” 웨딩홀 암행투어 ‘갑론을박’

예비부부 등 하객 위장 예식 살피

주차·로비 혼잡도·식사 등도 확인

“합리적 선택” vs “무례한 행동”

전문가 “비용 등 투명 공개 필요”

‘하객룩으로 참석할 것’, ‘결혼식 시작 전 방문’, ‘동선 방해 금지’.

결혼 비용이 치솟으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웨딩홀 암행투어’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웨딩홀 암행투어는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올릴

예식장을 고르기 위해 하객으로 위장해서 둘러보는 걸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합리적 선택’이라는 평가와 ‘무례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17일 네이버 카페 ‘다이렉트 결혼준비’, ‘메이 크마이웨딩’, ‘광주결혼준비’에는 웨딩홀 암행투어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한 게시글에는 ▲주차장 규모와 대기 시간 ▲예식장 로비 혼잡도 ▲뷔페 음식 상태 ▲하객 동선 ▲신부대기실 위치 등 하객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일종의 체크리스트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게시글은 상담이나 홍보 자료만으로는 실제 예식 분위기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SNS와 온라인 결혼 준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인데, 광주 지역 웨딩홀에 대한 경험

담도 공유되고 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예식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요는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의 결혼서비스 평균 계약 금액은 1천6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비용(전88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 예비부부들은 각종 옵션과 추가비용이 붙어 실제 지출은 통계보다 훨씬 커진다고 제대로 된 소비를 위해 사전 확인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최모(32)씨는 “상담만으로는 하객이 물리는 시간대 분위기나 주차 불편, 식사 동선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양가 어른신

과 친척들도 방문하는 만큼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사적 행사에 들어가 현장을 둘러본다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주차 예식 시간대에는 주차장과 로비, 엘리베이터, 식사 공간이 이미 하객들로 붐비는데 외부 방문객이 늘면 혼잡이 가중되고 예식 당사자 입장에서는 낯선 이들이 식당을 둘러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임모(34·여)씨는 “결혼식장에 모자를 쓰고 편한 차림으로 온 커플이 있는지 체크했다”며 “하객이었는데, 웨딩홀 암행투어에 나선 이들인지는 결국 확인하지 못했

나 암행투어는 식장 측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주 한 웨딩홀 관계자는 “주차 예식 시간에는 하객이 많아 예식장이 혼잡한데 하객이 아닌 방문객까지 늘어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시설을 확인하려면 상담을 통해 안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전성준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웨딩홀은 비용 부담이 크고 사전 평가가 쉽지 않은 서비스여서 예비부부가 실제 현장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주차 혼잡 시간대, 추가 옵션을 포함한 총비용, 실제 운영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암행투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연상 기자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17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서구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치매 조기검진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어르신들이 치매 및 치매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검찰개혁 협의안’ 지역 법조계 ‘관망’

檢 내부망 잠잠...“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이후 광주·전남 지역 법조계는 별다른 반응 대신 후속 절차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글은 게시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함께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협의안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공소청의 경우 ▲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삭제 등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부패·경제·마약·방위 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에 ‘법외범죄’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검찰 내부에선 이렇다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익명의 한 검사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법안이

올라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유의 관심사”라며 “두 설치법이 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주안점을 둔 이상 형소법 개정안을 통해 세부 기능이 갈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보완 수사권이 제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 후속 논의에 눈길이 간다”며 “설치법들의 일부만 공개됐지만, 기존 논의됐던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인재영 기자

5·18국민추진위 “국회의원 입장 묻는다”

공개질의서 전달...답변 오는 24일 공개

5·18정신헌법전문수목국민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들에게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을 묻는다”며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남식 5·18공로사회장은 “국회의장이 제안

한 개헌특위 구성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위 구성에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공개질의서에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 ▲내란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질의서는 이날 국회의원 200명 전원에게 이메일과 의원실을 통해 전달됐으며, 답변 내용은 오는 24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연상 기자

산재 잇따르자 거리로...노동단체 ‘1인 시위’

전남서 올해 9명 사망...대책 촉구

올해 들어 전남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노동·인권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집행 등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선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 “18일 오후 전남도청과 광주·목포·여수노동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취약 노동자 보호 역시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올해 전남에서만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추락·끼임·질

식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찬용 기자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흡취 투약

근무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심병을 흡취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예관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A(40대·여)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북구 매곡동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80여병을 수차례에 걸쳐 흡취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프로포폴 수량이 줄어든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윤찬용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